성경적 전도 **(The Biblical Evangelism: The Holy Spirit)**

- 사도행전 **1**장**:** 전도의 기초
-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전도 방향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로 부르신 자를 위해 이미 복음 전할 현장을 준비해 두셨고, 그 현장에 예비된 제자를 세워 두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22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전도는 곧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와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완전한 성취임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즉, 전도의 본질과 핵심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 선포의 결과로 수많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 죄를 회개하였고,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참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오늘날과 같은 신약 성경 문서나 복음서가 완성되기 전이었으므로, 구약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직접 보고 들은 바를 선포한 사도들의 생생한 목격 증언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리는 강력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참된 전도란 성령 충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와의 만남, 언약의 성취, 그리고 죄에서의 참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전도를 위해 전도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전도의 결과로 현장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성경적 전도의 절대적인 원리와 방향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준비가 없다면 진정한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이 삶과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기도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 뿌리내려야 하며, 참된 예배를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나 사도의 가르침(제자들의 증언과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양육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 운동의 흐름이 현장에 지속될 때, 현장은 반드시 근본적인 영적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고 성취를 맛본 제자는, 또 다른 현장과 또 다른 사람을 향해 동일한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가 세워지고 또 다른 제자를 살려내는 과정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전도의 재생산 시스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대 전도 시스템을 명확히 보여주며, 이 시스템이 현장 속에서 어떻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취되는가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영적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默想)해야 합니다.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은 나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1:1로 깊이 교제하고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축복입니다.